

# 본회, 제13대 회장에 최상백 부회장 선출



제19차 대의원 정기총회

- 홍보부 -

-제 19차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은 이명복·전재명·김건태씨 선출  
 -최우수 지부에 남제주 지부, 우수지부에 거창·김제지부 표창

**본**회는 지난 2월 13일 오후 2시에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전동용 회장 및 부회장, 도협의회장, 각 지역 지부장 등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제1호 의안 : 1997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제2호 의안 : 1998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 이사회 위임(안) ▲제3호 의안 : 임원선임(안) ▲제4호 의안 : 기타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축산업계의 최대숙원이었던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의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로 인해 면세로 추진하려던

정부의 방침을 부가세 영세율이 유지되는데 힘을 다했다”고 말하고 “협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뭉쳐서 양돈산업이 국민의 식량산업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영한 전무는 대의원들에게 ▲최근 양돈산업 동향 및 주요업무 ▲1998회계년도 사업실적 ▲199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보고했다. 또한 김건태 감사는 지난 1월중에 실시한 본회 감사결과를 이날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전동용 회장은 안건심의에 앞서 한만수 천안지부장으로부터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자가배합사료 원료공급을 안정적으로 해



▲ 전동용 회장(우측)이 한만수 천안지부장으로부터 부가세영세율 적용과 자가배합사로 원료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준데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홍성지부 차은숙씨가 최우수 직원표창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

준데 대하여 감사패를 전달받고, 97년 최우수 지부로 선정된 남제주지부(지부장 : 이문하)와 우수지부로 선정된 김제지부(지부장 : 이관호), 거창지부(지부장 : 이봉우)에 대해 최우수와 우수지부상을 수여하였으며, 홍성지부 차은숙씨에게 장기근속하면서 지부사업을 잘 보조하였기에 최우수 직원표창을 수여했다.

안전심의에서 대의원들은 총세입 3,868,565천 원 과 총세출 3,615,907천원으로 구성된 1997회계년도 수지결산(안)을 승인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최근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사료비와 유류비의 폭등과 제반물가의 상승으로 '98 회계연도 실행예산에 대해 전반적인 재편성이 요구됨에 따라 '98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이사회에 위임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동용회장의 임기가 만

료됨에 따라 임원선출을 하였는데 정영찬 의장이 임시의장을 맡았으며, 선출방법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자유경선을 통해 후보가 먼저 등록을 한 후 투표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투표가 진행되었다.



▲ 좌로부터 남제주지부(지부장 : 이문하), 김제지부(지부장 : 이관호), 거창지부(지부장 : 이봉우)가 '97 최우수지부(남제주지부) 및 우수지부로 선정돼 전동용 회장으로부터 수상하고 있다.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상백 회장, 최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국내의 양돈산업과 협회를 위해 몸을 바쳐 열심히 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후보로는 최상백 부회장, 기정도 부회장, 전동용 회장 등 3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입후보자의 짧은 출마의견을 들은 후 곧바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상백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선거후 각 지역 도협의회장 및 지부장 18명을 선임하여 15분간 정회를 가진 후 정회를 통해 부회장에 이명복 부회장, 전재명 이사, 김건태 감사를 선출하였으며, 김상호, 김성근, 김인식, 김재철, 김철수, 김현병, 박노영, 송정기, 유재환, 윤주성, 이영춘, 정진섭, 조옥봉, 최희태, 최영렬, 허현씨가 이사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김동환 안양·시흥지부장과 한만수 천안지부장을 감사로 선출하였으며, 고문에는 기정도 부회장을, 전동용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한편 신임 최상백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본인을 선택해 주신데 대해 대의원들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협회를 위해 몸을 바쳐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의 모든 양돈인들 전체가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며, 앞으로 양돈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자조금법 개정을 기필코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의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전국을 도단위로 순회방문하여 분노처리등 어려운 문제점들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養豚**



전동용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경선을 통해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날 최상백 부회장, 기정도 부회장, 전동용 회장 등이 회장후보로 출마하였다. 사진은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모습.